

Eugene Daily Snapshot

기타법인 매수 지지에 코스피 강보합 사수

유진투자증권

2026.09.02

글로벌 매크로팀 이준영_02)368-6136_lee.jy@eugenefn.com

주식 (26.9.1)

(단위: pt, %)

		증가	1D	1W	1M	YTD
한국	KOSPI	6,835.80	0.2	1.4	3.6	62.2
	KOSDAQ	821.25	-1.6	-0.7	14.1	-11.3
미국	S&P500	7,631.47	-0.7	-0.6	1.9	11.5
	NASDAQ	26,099.77	-1.0	-0.2	2.9	12.3
	필라델피아 반도체	11,288.61	-2.1	-2.6	-0.2	59.4
유럽	EUROSTOXX50	6,368.98	-0.8	-1.3	0.2	10.0
	독일 DAX40	25,970.11	-1.1	-1.1	1.3	6.0
아시아	일본 NIKKEI225	66,215.34	-0.1	0.5	2.9	31.5
	대만가권	25,329.73	-0.9	-0.7	-2.1	-2.1

채권

(단위: %, 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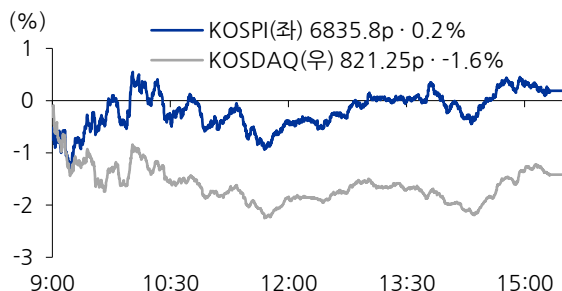
		증가	1D	1W	1M	YTD
한국	국고채 3년물	3.88	4.0	4.8	12.0	92.5
	국고채 10년물	4.37	5.8	5.1	11.0	98.6
미국	미국채 2년물	4.40	5.5	22.3	10.7	92.6
	미국채 10년물	4.79	4.1	16.3	5.7	62.5
	미국채 30년물	5.27	3.2	10.8	-0.3	43.0
	NVDA CDS 5년물	83.36	1.1	-3.5	9.5	41.6
	ORCL CDS 5년물	209.67	6.4	-6.0	7.3	66.1

환율 및 원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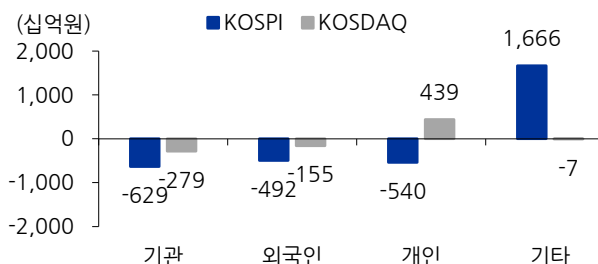
(단위: %)

		증가	1D	1W	1M	YTD
환율	원/달러(원)	1,370.40	0.1	-1.1	-3.8	-4.8
	달러지수(pt)	99.66	0.2	0.8	-0.1	1.4
원자재	WTI 연결물(\$)	90.22	5.2	9.5	6.6	57.1
	금 연결물(\$)	4,396.40	-1.9	-6.3	8.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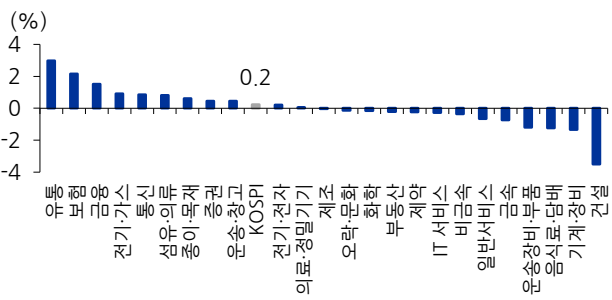
KOSPI · KOSDAQ 일중 등락률 추이 (26.9.1)



투자자별 수급 동향



KOSPI 일간 업종별 수익률



간밤 해외 증시

에너지·경기방어 강세 vs 소재·정보기술 약세

- 뉴욕증시 3대 지수 약세 마감 & 필 반도체 -2.1%. 다우 -0.8%-S&P500 -0.7%-나스닥 -1.0%-필 반도체 -2.1%. **중동발 지정학 위험 수위 올라가면서 유가·장기금리 동반 급등** → 장기 듀레이션 자산 다레이팅.
- WTI 연결물 +5.2%-\$90.22 마감, 7/23일(\$92.19) 이후 최고. 미국채 장기물도 연중 최고 수준, 10년물 4.79%(+4.1bp)로 25/1월 이후 최고 & 30년물 5.27%(+3.2bp).
- **(에너지)** COP(+2.8%)·EQT(+2.6%). **(경기방어)** 유틸리티 EIX(+8.9%)·PCG(+6.0%), **헬스케어** MRNA(+9.9%)·CVS(+3.9%), **필수소비** DLTR(+4.0%)·TGT(+1.8%).
- 메모리는 중국발 공급 우려에 약세. CXMT HBM3E 소량 생산 돌입 소식에 MU(-2.6%)·SKHY(-2.3%). **엔트로픽·람다(엔비디아 투자 네오클라우드) 350억 달러 클라우드 계약에도 NVDA(-1.5%)**. 기술주 전반 약세 속 META(+1.1%) & 존 터너스 신임 CEO 취임에 AAPL(+2.6%).
- 8월 ISM 제조업 54.6(예상 55.2·전월 55.6)으로 둔화 & 8개월 연속 확장 유지, 7월 JOLTS 727.1만 건(예상 730만·전월 735.9만) 소폭 하회.

전일 국내 증시

이틀째 비슷한 그림

- 국내 양대 증시는 전일과 유사. **코스피 강보합(+0.2%)·코스닥 하락(-1.6%)**. 코스피는 기관 순매도 축소 & 기타법인 순매수 확대로 막판 강보합 전환. 수급 구도도 이틀째 동일(코스피 외국인·기관·개인 순매도 ↔ 기타법인 순매수 / 코스닥 개인 순매수).
- **건조한 8월 수출이 투자심리 지탱**. 8월 수출 982.5억 달러(+68.7%yoy)·무역흑자 347.5억 달러로 3개월 연속 900억 달러 상회. 반도체 466.5억 달러(+209.0%)·컴퓨터 62.4억 달러(+419.5%) 역대 최대 월 수출(AI 인프라 수요 & NAND 가격 상승).
- **유가 & 장기금리가 위험선호 제약**. 미이란 상호 공습 여진에 전일 WTI 연결물 \$85.76(+2.8%)·국내 장중 +1.6%. **美 10년물 4.75%(+3.9bp)**, 25/1월 이후 최고·30년물 5.24% (+3.7bp), 국내 장중 각 +3.1·+3.2bp 확대. **베네투 재무장관의 일본 인상 압박(日 재무상 일축)과 日 10년물 3% 돌파(96년 이후 30년 만)도 부담**.
- 반도체 초과세수로 늘어난 **내년 예산, 반도체·AI에 집중**. 총지출 820.9조원(+12.8%) 편성 & 반도체 추가세수 기반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신설, 3대 메가프로젝트·AI에 21.3조원(+97.2%yoy) 투입(반도체 3.4조·피지컬AI 3.1조·전력용수산단 2.1조)

주: 한국시간 오전 7시 기준 자료 출처: 코스콤,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ugene Daily Snapshot



업종 및 특이 테마 동향

금융·소매유통 강세 & IT 가전·화장품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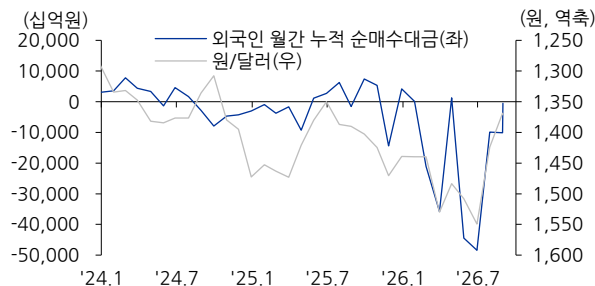
- **금리 상승 & 원화 강세가 업종 등락을 가름.** 금리 수혜 **금융**(은행·보험) & 환율 수혜 **내수**(소매유통·호텔레저) 상승 ↔ 원화강세 부담 큰 **IT가전·화장품의류·IT하드웨어** 하락.
- **(금융)** 고금리 수혜에 고배당 금융 업종(**보험·은행**) 강세. DB손해보험 +6.4%, 현대해상(+4.9%)·신한지주(+2.0%)·하나금융지주(+0.8%) 52주 신고가.
- **(내수)** 원화 강세에 **소매유통**(롯데쇼핑 +6.5%·신세계 +5.3%)·**호텔레저**(아나티 +3.7%·GS 피앤엘 +3.3%) 상승.
- **(에너지)** 유가 급등 & 자회사 SK온의 美 LFP 셀 공급계약에 SK이노베이션 +7.8%.
- **(반도체)** 기타법인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 삼성전자(+0.4%)·SK하이닉스(+1.1%).
- **(하락업종)** 원화 강세 부담에 동반 약세. **IT가전**(엘앤에프 -10.6%·LG에너지솔루션 -2.9%)·**화장품의류**(에이피알 -6.9%·코스맥스 -4.3%)·**IT하드웨어**(LG이노텍 -8.1%). 삼성전기(-1.9%)는 빅테크향 1조원 MLCC 공급계약에도 하락.
- **(코스닥)** 주요 업종 전반 약세. **제약바이오**(펩트론 -9.7%)·**반도체 소부장**(ISC -7.3%)·**차전자**(에코프로비엠 -3.8%)·**광통신, 로봇**(대한광통신 -4.7%, 로보티즈 -1.4%).

오늘의 클로즈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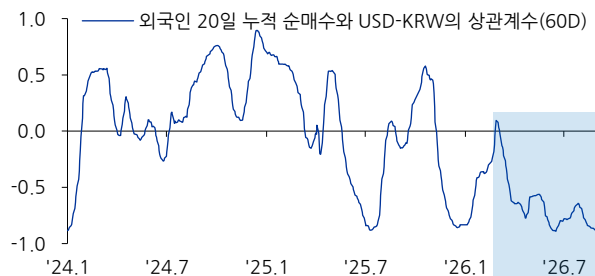
원화 강세와 암전해진 외국인 수급

- 달러-원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매매 강도는 눈에 띄게 둔화**. 최근 5거래일 코스피 외국인의 일간 순매수·순매도 모두 1조원 미만. **일평균 매매 규모 4,482 억원**으로 직전 20거래일(2.3조원)의 5분의 1 수준.
- 눈여겨볼 점은 **외국인 20일 누적 순매수와 달러-원의 상관계수가 26/3월 이후 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원화 강세 구간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약세 구간에서 이탈하는 통념대로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음. **최근 3개월 업종별 지분을 증감에 그 흐름이 그대로 드러남**. 외인은 **'원화로 버는 업종' 지분 확대 ↔ '달러로 버는 업종' 축소**.
- 지분을 증가는 매출 대부분이 원화로 발생하는 금융·내수 소비에 집중. 은행(+3.3%p)·소매(+2.8%p)·보험(+1.6%p)·증권(+1.5%p). 반면 감소는 달러 매출 비중이 높은 수출 제조에 몰림. **상사자본재(-5.4%p)에 낙폭이 집중**된 가운데 디스플레이(-1.8%p)·반도체(-1.4%p)·IT가전(-0.9%p)·자동차(-0.7%p)·기계(-0.3%p)가 뒤를 이음.
- 원화 강세가 실적을 훼손하지 않는 업종으로 외국인 수급이 몰린 가운데, **은행·보험 우선 관심**. 원화 매출 4개 업종 중 금리 민감도가 (+)인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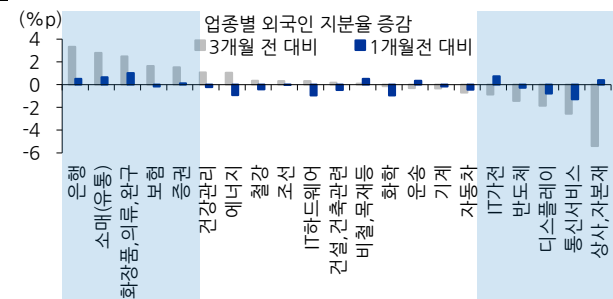
26/3 월 이후 함께 움직인 환율과 외국인 순매수



26년 들어 굳어진 (-) 상관



은행·소매 ↑ & 상사자본재·디스플레이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조원)

	8/31 일	1D	1W	1M
고객예탁금	99.7	-0.11	-3.31	-4.43
신용잔고	거래소	-0.10	0.54	3.42
	코스닥	7.0	0.01	0.09
수익증권	주식형(전체)	338.1	-0.92	141.42
	채권형(전체)	212.9	-0.07	10.65
MMF	257.2	-2.89	-3.41	5.60

KOSPI 기관/외국인 합산 순매수 상위 종목

순위	종목명	종가(원)	등락률	대금(억원)
1	SK 이노베이션	135,300	▲7.8	727
2	SK 스캐어	1,067,000	▲2.9	635
3	삼성전자우	190,300	▲2	385
4	SK	586,000	▲7.5	221
5	대한항공	28,750	▲2.3	149
6	메리츠금융지주	125,400	▲2.6	144
7	우리금융지주	34,550	▲2.2	137
8	신한지주	111,100	▲2	125
9	LG 에너지솔루션	367,000	▼2.9	112
10	삼성물산	390,500	▲3.7	102